

히다 유이치

속·극사적인 시민운동 기록

<그 4> 동아일보 읽기 모임

¥50

第6回、東亞日報を讀む会

1975. 5. 31. 於 康福会館

□ 社説 <4.19. 15周年に思ふ>	1975. 4. 19	ペ-ジ	2
□ <クメ-ル内戦>以後	"		6
□ 社説 "ヤ-共和国" 18部	4. 19 部		10
□ 朝鮮官憲申請・金芝河	5. 24		13
□ 春眠-4月. 試練の大学街	5. 19		14
□ コバリあじさん	5月3日 ~ 24日		21
□ 無影塔			26
□ 日本<朝鮮戦争>の報道			29

이런 이름의 모임이 있었다. 1975 년, 동아일보는 한국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 동아일보를 응원하기 위해 '읽는 모임'을 만들었다.

『무궁화통신』 29 호(1975 년 3 월)에서는 '동아일보 특집호'를 만들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무궁화통신은 가리판/ 복사판

인쇄가 아니었지만, 손으로 쓴 것이었다. 나도 꽤 글씨를 예쁘게 쓰고 있지 않은가? (이번에 이 특집 기사를 인터넷상의 '무궁화통신 총목록'에 올렸다. <https://ksyc.jp/mukuge/029/tongailbo.pdf>)

- 국민투표를 둘러싼 『동아일보』 보도 호리우치 미노루 (堀内稔)
- 동아 격려 광고 한 달 분석 히다 유이치 (飛田雄一)
- 광고 해약 속의 동아 방송 카시마 세츠코 (鹿嶋節子)
- 구속자의 '석방' 키타하라 미치코 (北原道子)

첫 번째 기사는 다음 문장으로 시작한다.

“현재 동아일보는 일선 기자 해고 문제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기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인해, 김지하 재체포 뉴스조차 보도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 센터에서는 광고 탄압 사건 이전부터 동아일보를 구독하고 있었다.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다. 실물이 도쿄 지사에서 보내졌다. 로비의 신문 쏙이에 두고 있었다.

여담이지만, 당시, 아직 센터가 적성 단체? 고베대학교 (神戸大学) 의 한국인 유학생이 "센터에 출입하지 말라"라고 영사관에서 말했다고, 나에게 가르쳐 준 유학생이 있었다.

센터 로비에서 열심히 동아일보를 읽는 유학생은 있었다. 말을 걸었다. 그러자 그 유학생은 달려서? 나가버렸다. 지금은 센터가 적성 단체가 아니다.



탄압을 받고 있는 동아일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읽는 모임이 시작되었다. 회장은 오사카 시립 노동회관이었다. 무궁화 모임의 회원들 외에, 오사카 외국어대학의 나가시마 테루오미(永嶋暉臣慎) 씨, 교토대학(京都大学)의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씨가 중심 멤버였다. 1975년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매주 개최했다는 것이 대단하다. 그때마다 주요 기사를 번역하여 자료집을 만들었다.

1호(1975년 2월 15일, 이 호는 안내만)부터 14호(1976년 1월 31일)까지. 본격 제본 합본을 두 권 정도 만들었다. 두께는 3.5cm. 한 권은 한국민주화운동기록보존회에 기증했다. 그곳에서 일하던 친구 김정남(金景南) 씨의 부탁으로 보냈다. 나머지 한 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무궁화회의에는 파일 제본된 것만 남아 있다.

호리우치 미노루(堀内稔) 아카이브에는 PDF 파일이 모두 있습니다. 이번에는 롯코 아카이브(고베 학생 청년 센터(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홈페이지 내 <https://ksyc.jp/rokko-archive/>)에 그 모든 파일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표지도 없이 신문 기사를 그대로 복사한 것뿐이었지만, 점차 자료집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동아일보, 무엇보다 '코바우 영감'입니다. 인기 있는 만화로 귀엽습니다. 유머 감각도 뛰어납니다. 권력에 대한 풍자가 강렬합니다. 이 자료집은 코바우 아저씨만 보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히다 유이치(飛田雄一、hida@ksyc.jp)

1950 년 고베(神戸) 출생. 공익 재단법인 고베 학생 청년 센터 이사장.
재일조선인사운동사연구회 간사이부회 대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공동대표, 고베항 전시하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사무국장, 무궁화회 회원. 저서로 『일제하
조선농민운동』(1991 년, 미래사), 『현장을 걷다-일본 코리아
기독교-』(간요출판, 2016 년),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기다-
재일교포와 나』(삼일서방, 2016 년), 『여행작가 기분-코리아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여행-』(합동출판, 2017 년), 『재론 조선인
강제연행』(삼일서방, 2018 년), 『극사적 에세이-코로나를
마주하며』(사회평론사 2021 년) 등이다.

히다 유이치 「속·극사적인 시민운동 기록」

〈그 4〉 동아일보 읽기 모임

2025 년 9 월 15 일 발행

집필 · 편집 · 인쇄 · 발행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657-0011 일본 고베시 나다구 츠루카부토 4-3-18-205

e-mail hida@ksyc.jp
